문제를 활성화시키지 말자

(사무엘상 14:1~15)

1.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2.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육백 명 가량이며
3.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4.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5.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6.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문제를 활성화시키지 말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문제를 활성화시키지 말자'

여러 영역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삶의 문제를 활성화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80~90년을 살고 죽습니다만 사람들의 몸속에는 암세포가 매일 발생하는데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암 중에는 예후가 좋은 암이 있고 나쁜 암이 있는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좋고 췌장암이나 폐암은 치명적이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을 댈 수 없을 만큼의 폐암 진단을 받은 권사님께서 8년 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폐암 세포의 활성화를 억누르신 것입니다.

'활성화'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장사도 활성화되면 좋고 교회를 세워도 목회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몸도 활성화되어야 좋습니다. 그러나 활성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들이 삶의 문제인데 굳이 삶의 문제를 활성화시킵니다. '문제해결, 난관극복, 역경승리'라는 말이 듣기에는 좋지만 모순입니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그 문제를 활성화시킨 장본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삶의 문제를 활성화시킵니다. 문제가 문제되게 하고 문제로 돌출되게 하고, 그 문제에 부딪혀서 해답을 찾느라 전전긍긍하며 노심초사하다 열 번 시도해서 한두 번 해답을 얻으면 문제가 해결됐고 난관을 극복했다고 생각하는데 난관도 사실은 내가 활성화시킨 것인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논리대로 말하자면 해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문제로 보이는 것이 눈앞에 돌출되면 그 문제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되고 그러면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에서 나오는 참 지혜입니다.

말은 좋지만 설제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나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는 객관적일 수 없고 모두 내가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문제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답을 찾을 필요가 없는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따라붙는 유전 죄가 있습니다. 이 유전 죄는 존재에 박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많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죗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멸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일회적으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우리 존재의 유전 죄를 해결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에 뿌리박힌 유전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혈압약과 같습니다. 문제가 활성화되려는 모든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면 문제의 싹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답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답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마치 혈압약이 혈압을 낮추는 것처럼 매일 십자가 생활화로 문제의 활성화를 억누르면 문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답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바로 복음의 삶인 샬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된 사울이 자기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블레셋의 영문을 치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돌적으로 공격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동원합니다. 오늘 날의 최신 무기와 같은 병거가 삼만, 마병이 육천,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집결하여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1절에 '하루는'이라고 하는데 대치하던 중 하루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도 없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을 대동하고 단독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결과적으

로 읽지 않은 부분까지 보면 블레셋의 전초기지를 쳐부수면서 이십 명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 진영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블레셋 군이 자멸해가는 광경이 본문을 설정한 데까지 펼쳐집니다.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해 승기를 잡게 되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마는 블레셋 진영에 혼란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장되어 갑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교전이 일어나진 않지만 대치하는 전시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왕인 아버지에게 아뢰지 않고 단독행동을 합니다. 또한 3절에서는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은 요즘으로 말하면 군사적으로는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에서 싸워서 이길 방법에 대해 날마다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신하들의 생각과 요나단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나단의 무기를 가지고 다니던 소년이 그 논쟁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라고 한 것이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을 이 소년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버지나 아버지를 따르는 신하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음을 알고, 이 대치상황을 잠자코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단독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요나단에게는 이러한 신앙이 있었는데 사울에게는 이러한 신앙이 없었던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문제를 활성화시키지 말자'를 염두에 두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대화가 어디에서부터 단절되었는지를 추적해 들어갑니다.

2절에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육백 명 가량이며'이라고 합니다. 블레셋의 병거가 삼만, 마병이 육천,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마주하고 있는 사울로서는 육백 명을 끌고 싸워야 하는 사실 앞에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명실상부한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지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린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떠나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육백 명으로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방법으로 제사장 아히야에게 에봇을 입혀서 데려다 놓았지만 '아히야'는 혈통 상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육백 명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기대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부자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요나단이 단독행동을 했느냐는 것이고, 사울 왕의 신하들도 요나단과 다른 생각을 했는데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수가 적어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동일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점이었습니다. 똑같은 경험이 다윗 때에도 일어나는데 골리앗을 마주 대하여 나갈 때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울과 육백 명의 신하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었지만 상대방은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례 언약의 뿌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언약을 베푸시기 전에 창17: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할례 받은 선민은 사업이 망하는 상황일지라도 전능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망해가는 사업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말이 요나단과 사울에게 달랐던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은 숫자로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나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던 전시상황이 현실이었고 그러한 현실을 문제로 가졌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야라는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혀서 데려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이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블레셋과의 대치국면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말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육백 명 밖에 없고 저들은 모래알처럼 많은 상황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그 문제가 활성화 되어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활성화 시킨 것은 블레셋과의 대치를 현실로 받아들인 사울 왕 자신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우레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현실감으로 느꼈습니다. 우레를 동반한 폭우 속에 서 있을 때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현실로 느껴질 때에 요나단은 사울로서는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요나단에게는 그 현실이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쳐들어갔다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과정에서 꼭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현실로 느끼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상을 현실로 받아들였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할례를 통해서 번제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묻지 않은 게 아닙니다. 또한 블레셋에게 자신을 보이고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

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문제로 받아들이면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활성화되면서 문제없는 날이 없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블레셋과 대치하는 이 상황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인 상황에서는 '나 혼자 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인데 아예 문제로 성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대치국면을 먼저 문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호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되어서 현실로 받아들인 문제 해결을 위한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되셔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은 활성화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현실로 모셔 들이면 문제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문제를 활성화시키고는 죽겠다고 해답을 찾으려하고 기도하며 구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증거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만을 현실로 삼을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이것이 한 번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전 죄를 존재에 품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 세상의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은 자연히 현실감에서 밀려나고 버려지게 되어서 종교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야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 받았으며 나는 지금 이 땅의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믿는 것인데, 사울에게는 왕이 된지 2년이 지나는 동안 이 싸움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 많은 삶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혈압 약을 먹듯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려는 나의 기질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수치가 높아지지 않게 십자가로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시면 문제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거나 설 것이고, 되거나 안 될 것이며, 되거나 안 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삶을 이끄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일은 삶의 문제로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답을 요구하며 살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혈압 약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먹음으로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 샬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